

지역 소식 통

고창군, 선운산농협 무장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고창군이 최근 선운산농협(무장면 무장읍성로 34)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관내 설치·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9대다. 군청, 고창읍사무소, 고창병원, 석정웰파크병원, 고창농협하나로마트, 대성농협(본점), 상하농협 365코너, 흥덕농협하나로마트를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지적·건축, 국제증명, 교육학적부 등 90여종의 민원서류를 제공 주민이 여러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한 자리에서 각종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해 7월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서류에 대해 수수료를 전면 무료로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단 법원 소관 서류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유료 발급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시설물 안전 점검 완료

부안군은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봄철 해빙기 안전 점검을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지도·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민간 위탁 시설물의 체계적 운영·관리 확인 점검을 위해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주산하늘빛문화센터, 동진문화복지센터, 백산녹두꽃문화복지센터 등 군에서 민간 위탁해 운영되는 주요 시설 11개소로서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운영관리 실태, 화재처리 투명성 및 협약서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시설물 점검 과정에서 물품관리대장 및 시설물 점검내역 비치 등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했으며 누수와 같이 추가적으로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2026년 준공 목표 수소충전소 설치... 탄소중립 실현·무공해차 보급 기반 마련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읍시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시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선다.

시는 18일 전북테크노파크와 수소충전소 구축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탄소중립 실현과 무공해차 보급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정읍시에 건립될 수소충전소는 사업비 80억원이 투입돼 시간당 100kg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상용 기체수소 충전소로 조성된다. 버스 2대를 동시에 충전 규모로, 농소동 농산물도매시장 주차장 부지 내에 설치 예정이다.

수소전기자동차는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얻은 전기로 구동되는 차량으로 미세먼지를 먹고 순수한 물만 배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읍시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시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선다.

하는 무공해 자동차로 분류된다.

이에 시는 수소충전소 구축과 함께 내년부터 수소전기자동차 50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시내버스와 청소 차량도 수소연료 차량으로 전환해 수송 분야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감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전북테크노파크의 전문 기술력으로 안전하고 최신 기술이 적용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겠다”며 “승용차뿐만 아니라 시내버스와 청소차량도 수소연료 차량으로 전환해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를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주민과 함께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나서

‘공간마술사’ 본격 가동

정읍시장예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 주민과 함께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

복지관은 지난 17일 ‘집수리봉사단 공간마술사’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가정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복지관 관계자를 비롯해 정읍VIP봉사단(대표 김민복), 국제와이즈맨 정읍녹두클럽(회장 이동수)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개인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2025년 ‘집수리 봉사단 공간마술사’ 운영 방안과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활하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 교체, 화장실 개선, 문턱 제거 등 편의시설 보강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행정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주민조직화 활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집수리봉사단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장애인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기업 안전강화 나선다... 4월 2일 산업재해 예방 교육

정읍시가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민간기업에 대상으로 산업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4월 2일 제3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 평가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 민간기업 사업주와 안전보건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위험성 평가

등의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기업들이 작업장 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기업 안전관리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민간기업에 안전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교육 장소를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로 선정해 참석자들이 시외로 이동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기업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했다.

이학수 시장은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사업장 내 안전 대책이 마련되고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안전수칙을 준수해 더욱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 신청은 3월 19일부터 4월 2일까지 시청 재난안전과를 통해 가능하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민 공익수당 신청 하세요”

정읍시, 5월 16일까지 접수... 9월 정읍사랑상품권 지급

정읍시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가구 단위 지급에서 농업인 개별 지급 방식으로 변경돼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이 환경 보전과 경관 유지, 식량 안보 등의 공익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하는 제도로, 오는 5월 1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농민이며, 작물 재배 농가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 양봉 농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양봉 농가여야 한다.

올해부터 지급 방식이 변경되면서 1인 경영체의 경우 종전과 같이 연 60만원을 지급받지만, 2인 이상 경영체

부터는 각 구성원에게 30만원씩 지급된다. 예를 들어, 3인 경영체라면 9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2023년 농업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나 지난해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있는 경우, 농지·산지·양봉산업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농업부산물·폐농자재를 불법 소각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민은 기간 내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춰 마을 이·통장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의 경우 농업이 주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 접수가 마감된 후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검토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확정된 대상자에게는 9월 중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드림스타트, 영유아 학습놀이 시범 운영

부안군 드림스타트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지난 15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19년생부터 2021년생까지의 영유아 5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학습놀이 지원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했다.

프로그램은 그림책 읽기, 놀이 활동, 오감 자극 체험 등 다양한 교육적 요소를 포함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보호자들도 함께 참여해 자녀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며 놀이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뜻깊은 시



간이 됐다.

협약업체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들이 학습과 놀이를 함께 경험하며 건강한 성장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며 “아동들을 위해 도서 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건강백세, 생활속 자가관리’ 추진

고창군이 의료급여 지역 주도형 특화사업으로 ‘건강백세, 생활속 자가관리’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건강백세, 생활 속 자가관리’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정보제공과 예방 교육을 통해 노년기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 대상은 만성질환 의료급여 수급권자 80명이다. 의료급여관리사가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 대상자들의 혈압, 혈당 측정 등 건강 체크,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간단한 건강체조, 만

성질환 및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올바른 식습관을 안내할 예정이다.

오수목 고창군 사회복지과장은 “일상생활에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가건강관리 실천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아울러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 지지체계 구축을 통하여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